

양현종 “‘우승 DNA’ 살린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투수 최고참' 양현종이 안방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KIA가 26일 롯데 자이언츠를 안방으로 불러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롯데와 주중 3연전을 갖는 KIA는 주말에는 시즌 첫 원정길에 오른다. 29일부터는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2024시즌 KIA의 출발은 좋다.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개막전을 치른 KIA는 '만원관중' 앞에서 7-5 역전승을 거뒀다. 새로 지휘봉을 든 이범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에서 승리를 이끌며 선수들로부터 축하의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KBO리그 데뷔전에 나선 월 크로우가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타자들은 집중력 있는 타격과 허를 찌른 더블스틸을 선보이면서 KIA의 힘을 보여줬다.

올 시즌 KIA의 강점으로 꼽히는 불펜도 든든했다.

2점 차로 쫓긴 6회초 2사 1루에서 투입된 2년 차 좌완 광도규가 좋은 구위를 앞세워 '난적' 송성문을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이어 전상현-최지민-정해영으로 이어진 계투진이 완벽하게 승리를 마무리했다.

KIA 입장에서는 개막 두 번째 경기가 비로 취소

오늘부터 주중 롯데와 홈 3연전

양현종, 반즈와 좌완 맞대결

주말 두산전 열세 지우기 관건

나성범 부상에도 공격력 이상無

된 게 아니다. 분위기를 살려 연승을 노렸던 KIA는 24일 비가 계속되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비'를 만난 KIA는 선발 고민을 했다.

롯데에 약했던 양현종을 키움전에 전진 배치했고, 주중 3연전에 맞춰 선발진을 준비했던 상황. 이범호 감독은 24일 "비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양현종과 등판 일정을 상의하겠다"고 밝혔고, 26일 선발로 양현종을 나섰었다. 이와 함께 양현종과 롯데 반즈, 좌완 맞대결이 준비됐다.

경험으로는 누구보다 앞선 양현종이지만 '감'이 변수다.

양현종은 장염으로 지난 12일 예정됐던 한화와 시범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18일 삼성전을 통해 시범경기 처음이자 마지막 등판을 소화했고, 예정됐던 시즌 첫 등판도 비로 밀린 만큼 초반 경기 감각이 성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주말 3연전 결과도 우승을 노리는 KIA의 올 시

즌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A는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4승 12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냈다. 두산에 유독 약했던 모습은 올 시즌 시범경기에서도 이어졌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두산전 열세를 지우고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하다.

이우성의 활용도도 관전포인트다. KIA는 개막을 앞에 두고 나성범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범호 감독은 예상치 못한 부상 악재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개막전에서는 시범경기에서 감이 좋았던 황대인을 1루에 배치하고, 이우성을 우익수로 투입하면서 두 선수를 동시에 활용했다.

외야 구성은 선발 투수에 따라라도 변동될 전망이다. 매치업에 따라 좌타자 최원준과 우타자 이창진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원준은 시범경기 부진에도 개막전에서 솔로포를 날리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이창진은 이범호 감독이 올 시즌 가장 주목하고 있는 타자다.

KIA의 초반 질주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 24일 키움과의 시즌 2차전을 비로 치르지 못했다. 초반 분위기를 이어 연승을 이어가려던 계획이 비로 무산됐고, 25일에도 광주에는 종일 비가 내렸다. 26일 오전까지 비예보가 있는 만큼 KIA는 하늘을 올려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2 전남드래곤즈, 코리아컵 3라운드 진출



전남드래곤즈의 하남(가운데)이 지난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강릉시민축구단 1-0 승 31일 천안시FC 홈경기

전남드래곤즈가 강릉시민축구단을 꺾고 2024 코리아컵 3라운드에 진출했다.

전남은 지난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 열린 강릉시민축구단과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강릉시민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한 전남은 수문장 최봉진을 필두로 김예성, 유지하, 홍석현, 이규혁으로 수비라인 포백을 구성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베테랑 조지훈을 기용한 전

남은 추상훈, 박태용, 김건오, 이성운을 중원에 배치했다. 하남은 최정방 공격수로 전면에 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방 압박수비를 하며 상대를 몰아붙인 전남은 전반 21분 골 맛을 봤다.

박태용이 왼쪽 측면을 돌파해 공을 넘겼고, 하남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전남은 후반전에는 발디비아, 김종민, 노건우, 유진홍을 투입하면 득점 사냥에 나섰다. 추가골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하남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3라운드에 진출했다.

3라운드 상대는 경남FC다. 전남은 4월 17일 오후 7시 경남 안방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코리아컵 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결승골을 장식한 하남은 "2024년도 첫 골이 결

승골이 돼 기쁘다. 선수들 모두 승리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했다. 다음 3라운드에서 경남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관 감독은 "홈 팬들 앞에서 다시 승리해서 매우 기쁘다.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을 위해 더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정규리그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많은 득점으로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024 4라운드 천안시FC와 경기를 갖고, 코리아컵 포함 홈 3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1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성중이 우승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아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동성중 야구부, 전국소년체전 광주 예선 우승

5월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참가

동성중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로 나선다.

동성중은 최근 무등야구장에서 진행된 제11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동성중, 무등BC, 진흥중, 총장BC, GJ스타즈BC 등 5개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대결했다.

동성중은 총장BC와의 첫 경기에서 5-2 승리를 거뒀고, 둘째 날 진흥중을 8-5로 이기면서 연승을 기록했다.

셋째 날 GJ스타즈BC를 상대로 8-0, 5회 콜드승

을 거둔 동성중은 무등BC와의 최종전도 6-5 승리로 장식하면서 4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동성중은 오는 5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대회 시상 내역>

- ▲최우수선수상 : 김민재(동성중) ▲우수투수상 : 이승빈(동성중) ▲타격상 : 장유준(9타수6안타, 타율 0.667·총장BC) ▲최다도루상 : 임찬우(5개·총장BC) ▲최다타점상 : 임찬우(6타점·총장BC) ▲감투상 : 송시현(총장BC) ▲미기상 : 박정민(동성중) ▲감독상 : 강대성(동성중) ▲지도상 : 김중석 부장(동성중)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B 최지만, 개막 로스터 탈락... 트리플A서 시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입성을 노렸던 최지만(32·뉴욕 메츠)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미국 매체는 25일 최지만이 구단으로부터 개막 26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고도 팀을

찾지 못했던 최지만은 지난달 메츠와 스플릿 계약(신분에 따라 연봉 차등 지급)을 체결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소화하며 경쟁에서 승리해 빅리그에 재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시범경기에서 그는 타율 0.189(37타수 7안타), 1홈런, 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42로 고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 3관 랜드 오브 배드, 밤 말라: 원 러브, 메이 디셈버
- 4관 극장판 스피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 5관 둔: 파트2, 윙카, 당신이 잠든 사이
- 6관 파묘, [위드키즈]브레드데이발소: 셸럼 인 베이커리타운, 리볼버 릴리
- 9관 파묘, 당신이 잠든 사이
- 7관씨네극장 파묘
- 8관씨네극장 파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